

勞動價値論의 論理構造에 관한 세 가지 命題*

柳 東 民**

논 문 초 록 :

이 글에서는 勞動價値論의 論理構造에 관한 세 가지 命題를 둘러싼 論點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그들 간에 일정한 논리적 연관이 존재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첫째, 생산가격체계는 닫힌 체계이다(또는 열린 체계이다). 둘째, 노동력의 가치는 賃金財의 가치로 정의된다(또는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일반이윤율은 基礎財부문의 생산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또는 非基礎財부문의 생산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들 세 가지 명제 간의 연관을 추적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관점에 입각하여 價値論의 學說史를 정리함과 아울러 勞動價値論의 訂正 또는 확장을 통한 一般化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 노동가치론, 학설사, 방법론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 B4

I. 序 論

筆者는 이 글에서 노동가치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하고 그들 간에 일정한 이론적 연관이 존재함을 보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후속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의 성격을 갖는다.

첫째, 하나의 새로운 관점에 입각하여 가치론의 학설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가치론이 현재 위치하여 있는 지점,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지점을 파악함으로써, 노동가치론의 訂正 또는 확장을 통한 일반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물론 내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기존의 가치논쟁은 우선 어느 한 입장이 상대방 입장의 논리적인 非정합성을 지적하면, 공격을 받은 쪽이 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것을 일부 수용하여 기존의 체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轉形論爭은 그 대표적인 例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채택되는 방식은 이와는 다른 것이다. 筆者는 각 이론의 내적인 논리정합성의 문제는 일단 論外로 하고, 각 이론체계의 가정이 가져오는 이론적 효과 또는 현실에 대한 含意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형논쟁의 경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입장이 형식논리적인 정합성을 엄밀하게 유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붕괴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처음에는 단순히 형식논리적인 오류나 기술적 문제인 것처럼 보이던 것도 나중에는 경제학 방법론을 둘러싼 큰 문제로 확대됨으로써, 일종의 패러다임 간의 대립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이 글의 연구방법은 나름대로 유효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 글에서 제시되는 명제들은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 원칙적으로 노동가치론과는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격이론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論旨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노동가치론적 전통과 다른 전통을 비교하는 것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II. 세 가지 命題

아래에서 제시되는 세 가지 명제는 노동가치론 내부에서 여러 입장이 갈라지도록 만드는 세 가지 論點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즉, '세 가지 명제'라고 命名하였지만, 실상은 세 가지 논점에 관한 서로 대립되는 입장들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논점은 긍정적인 형태와 부정적인 형태의 두 가지 명제로 표현된다. 물론 노동가치론의 모든 입장이 항상 명확하게 각 명제의 긍정적인 형태, 아니면 부정적인 형태를 兩者擇一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명제 간의 상호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 한 쪽으로 정리되는 것이 논리의 首尾一貫性을 확보하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세 가지 명제가 모두 동일한 추상수준에서 정의되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명제가 모형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명제는 그러한 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이론 또는 모형설정의 가정에 관한 일종의 下位範疇라 할 수 있다.

1. 열린 체계와 닫힌 체계

먼저 ‘열린(open)/닫힌(closed) 체계’라는 용어법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용어법은 잘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제모형의 수학적 구성과 관련하여 연립방정식체계가 唯一解를 갖기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라는 점과 관련되는 용어법이다.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유일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단 內生變數의 수와 방정식의 수가 같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체계가 닫혀 있다는 것은 與件으로 처리되는 外生變數들의 값이 주어질 때, 체계를 구성하는 식들에 의해 解를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열린 체계’란 형식적으로는 외생변수의 값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정식이 풀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사실은 그 외생변수의 결정과정 에 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여러 가지 우연적 조건의 작용이 통제된 실험적 상황을 통해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닫힌 체계’로, 그것이 불가능한 체계를 ‘열린 체계’로 이해하는 용어법이다.¹⁾ 자연과학에서 실험이 가능한 것은 잘 통제된 상황에서는 각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련의 법칙적 관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과학에서는 그러한 법칙적 관계의 반복적 재현은 관측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경제’가 경제 이외의 다른 사회적 관계나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의 순환하는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사회 내에 통합되어 있다고 보는가라는 의미이다. 이른바 ‘경제의 埋沒性(embeddedness)’이라는 이 문제는 폴라니에 의해 강조되어, 시장이 과연 자기조정적인 성격을 갖느냐라는 문제와 연결되었다. 폴라니가 말하는 자기조정이란 “모든 생산활동이 시장판매를 위해 수행되고, 모든 소득이 그와 같은 판매로부터 생겨나는 것”(Polanyi, 1991, p.92)을 의미한다. 자기조정적 시장은 사회 전체가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으로 분할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가 사회 내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구별되는

1) Reuten(1997)이나 Smith(1997)는 바스카(Roy Bhaskar)의 논의를 借用하여, 이와 같은 방식의 이해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의 이윤율저하경향법칙은 자본주의 경제라는 ‘열린 체계’에서의 법칙이기 때문에, 항상 상쇄경향과 동시에적으로만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쇄경향으로부터 분리되어 이윤율저하경향만 일방적으로 貫徹되는 실험적 상황(experimental situation)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율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²⁾ 그러나 폴라니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조정적 시장이라는 관념은 노동력과 화폐, 토지 등의 이른바 ‘허구적 상품’의 상품화운동에 기초한 하나의 神話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이에크 등이 ‘열린 체계’라 규정하는 시장은 실상은 ‘매몰된 체계’인 셈이다.³⁾

‘열린/닫힌 체계’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세 가지 용어법은 각각이 지시하는 대상이나 준거하는 추상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열린/닫힌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자가 채택하는 의미는 위의 세 가지 의미 중의 어느 것과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첫째와 셋째 의미와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물론 수학적 모형의 형식구성과 관련된 첫 번째 의미와 경제의 매몰성이라는 세 번째 의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매개고리가 필요할 것이지만, 적어도 이 글에서 다룰 노동력상품의 문제에 관한 한 兩者 간의 관련성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첫 번째 命題 : 열린/닫힌 체계로서의 생산가격체계

첫 번째 명제는 생산가격⁴⁾체계가 열린 체계인가 아니면 닫힌 체계인가에 관한 것이다.

경제 전체에 걸쳐 균등화되는 이윤율을 r , 투입계수행렬을 A 라 할 때, 생산가격(p)체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 = (1 + r)pA \quad (1)$$

식 (1)에서 생산의 기술적 조건을 나타내는 행렬 A 의 구조가 주어지면, 이윤

2) “자기조정적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회가 제도적으로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으로 분할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분할은 실제로 자기조정적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체사회의 관점에서 달리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Polanyi, 1991, pp.94-95)

3) 시장에 대한 하이에크의 인식과 관련하여, ‘열린 체계’로서의 시장이라는 문제에 관해 검토하고 있는 논의로는 박도영(1997), pp.166-172 참조.

4) 여기에서 생산가격은 마르크스적인 의미에서의 개념일 수도 있고 일반균형이론적 의미일 수도 있다. 양자 간의 개념 차이에 관한 유력한 주장 중의 하나로는 Semmler(1984)를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논의를 위해서는 이 개념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상정하는 균형가격 정도의 의미로만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율과 상대가격은 동시에 결정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을 가진 채 우변에 등장하는 모든 투입물들은 반드시 좌변에서도 산출물로서 나타난다. 즉, (1)로 묘사되는 경제에서 모든 상품은 항상 현존하는 체계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결합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이러한 체계를 닫힌 체계라 부를 수 있다. (1)을 변형하면, 다음을 얻는다. 단, I 는 恒等行列이다.

$$p[I - (1 + r)A] = 0 \quad (1)'$$

즉, 식 (1)'는 우변이 零벡터인 동차방정식체계(homogeneous equation system)로 변형된다. 따라서 어떤 균형가격체계가 동차방정식체계로 변형된다면 그것은 닫힌 체계라 할 수 있다.⁵⁾ 스라파의 생산가격체계가 이러한 성질을 갖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왈라스가 제시하는 일반균형모형도 마찬가지이다. 즉, 식 (1)에 등장하는 투입계수행렬(A)이나 생산가격벡터(p) 대신에 부문별 초과수요함수가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동차방정식체계로 변형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그런데 고전적인 형태의 노동가치론에서는 균형가격이 노동지출량(l)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상정한다.⁶⁾

$$p = kv = kl(I - A)^{-1} \\ \therefore p(I - A) = kl \quad (\text{단, } k \text{는 임의의 scalar}) \quad (2)$$

도출과정에서 보듯이, 식 (2)는 가치결정식 $v = vA + l$ 에 가격이 가치에 비례한다는 관계를 도입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다. 식 (2)는 식 (1)'와는 달리 우변의 노동투입벡터가 零벡터가 아니므로 동차방정식체계가 아니다. 보다 정교화된 형태의 노동가치론도 궁극적으로는 식 (2)와 같은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생산가격체계를 동차방정식체계로 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

5) 생산가격체계가 '리카도적 편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1차동차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강남훈(1994)의 지적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는 '자기완결성'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는데(p.5), 그 내용은 사실상 이 글에서 말하는 '닫힌 체계'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6) 여기에서 고전적인 형태의 노동가치론이란 특별히 그에 相應하는 실체가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다. 다만 가격이 가치에 비례한다는 의미에서 노동가치론에 대한 어느 정도 판에 박힌(stereo-type) 해석을 의미할 따름이다. 한편, 여기에서의 p 는 이윤율이 균등화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의 균형가격은 아니고, 다만 가치에 비례하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고전적 형태의 노동가치론이 상정하는 일종의 균형상태임을 나타낸다.

이가 노동가치론을 인정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의 分岐點이 된다. 일단 식 (2)는 식 (1)과는 달리 자기완결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체계를 열린 체계라 부를 수 있다. 식 (2)에서 A 와 l 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면 상대가격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식 (2)는 일견 닫힌 체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식 (2)는 $v=uA+l$ 이라는 가치체계결정식을 먼저 풀 다음에야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체계인 것이다. 예컨대, 새뮤얼슨의 유명한 지우개의 비유와 같이 가치개념을 불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v(I-A)=l$ 과 $p(I-A)=l$ 을 각각 자기완결적인 두 개의 닫힌 체계로 간주할 것이다.

모든 형태의 가치론은 균형가격의 결정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식 (1)(또는 (1)')이 아니라 식 (2)와 같은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식 (1)은 기본적으로 재화의 가격을 가격에 의해 설명하는 순환적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환적 구조는 단순히 순환논법으로 치부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⁷⁾ 가격이론의 일차적 과제가 어떤 의미에서든지 균형상태에 대응되는 가격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식 (1)과 같은 순환적 구조를 갖춘 체계로도 훌륭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일반균형이론이 현대이론 경제학의 頂點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이를 용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어쨌든 첫 번째 명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명제 1] 생산가격체계는 닫힌 체계이다.

(또는 그 부정으로서의)

[명제 1]' 생산가격체계는 열린 체계이다.

즉, 가격과 구별되는 별도의 가치개념을 상정하는 모든 이론은 열린 체계를 상

7) 적어도 노동가치론과 관련하여 순환적 구조와 순환논법의 차이점을 강조한 최초의 연구로는 Brody(1970)를 들 수 있다(pp.84-94). 그는 예를 들어 복잡노동을 단순노동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가격변수인 임금률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마르크스의 논리구조가 순환적이라고 비판한 뵘바베르크에 대해 힐퍼딩은 순환성을 전면 부정하는 방법으로 맞섰음을 상기시킨 뒤, “보다 현실적이고 유의미한 방어는 순환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과학적 사고에 있어 그와 같은 (순환적-引用者)정의의 이점을 보이는 것”이라 주장한다(p.84). 그러나 이와 같은 브로디의 시도는 오히려 가치체계 없이도 생산가격체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론은 불필요하다는 新리카도학과 등의 비판—이른바 ‘불필요성 명제 (redundancy thesis)’—으로 가는 길을 여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洪蕙(1997)은 이러한 ‘순환성(circularity)’과 ‘순환논리(circular reasoning)’ 이외에 연립방정식체계에서 모든 변수들이 상호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동시결정(simultaneous determination)’을 추가한 뒤, 고전학과와 마르크스는 이들 3者を 혼동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p.309).

정하는 것과 정합적이다.

3. 두 번째 命題 : 노동력상품의 처리방식

두 번째 명제는 첫 번째의 것과는 달리 노동가치론 고유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자본주의 경제를 특징짓는 상품인 노동력의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라는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노동력의 가치를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노동자가 소비하는 생활필수품(또는 임금재)의 가치로 치환하여 처리하는가의 여부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명제 2]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가 소비하는 임금재의 가치로 정의된다.

(또는 그 부정으로서의)

[명제 2]'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가 소비하는 임금재의 가치로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임금재 가치로의 치환이 [명제 1]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자. 임금지불분까지 고려하여 식 (1)을 고쳐 쓰면 다음과 같다. 단, w 는 단위임금률을 나타내는 scalar이다.

$$p = (1 + r)(pA + wl) \quad (1)''$$

식 (1)''는 그 자체로는 식 (1)'와 같은 동차방정식체계로 전환될 수 없다. 여기에는 물론 임금을 先拂로 간주하는가 아니면 後拂로 간주하는가, 임금에 생존임금만 포함시키는가 아니면 物的 잉여로부터의 분배분도 포함시키는가 등의 논점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주목하는 바와 같이 [명제 1]과의 관련하여서 생각하면, 핵심적인 論點은 노동력이 우변에서는 매우 중요한 투입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좌변에 산출물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임금이 임금재가치에 의해 정의되는 노동력가치와 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생산가격체계는 다음과 같이 동차방정식체계로 변형된다. 단, d 는 임금재벡터, $A^* \equiv A + dl$ 은 노동투입까지 고려한 확장된 투입계수행렬(augmented input coefficient matrix)이다.

$$\begin{aligned} p &= (1 + r)(pA + pdl) = (1 + r)p(A + dl) = (1 + r)pA^* \\ \therefore p[I - (1 + r)A^*] &= 0 \end{aligned} \quad (1)'''$$

즉, 노동력의 가치를 임금재가치로 변형하는 것은 단순히 定義上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생산가격체계를 닫힌 체계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노동력이 갖는 여러 가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학에서 그것은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된다는 점 때문에 일정한 유보조건을 단 채 상품(예컨대, '특수한' 상품)으로 간주되어 왔다. 더욱이 노동을 유일한 가치창출의 원천으로 간주하는 고전학과 이래의 노동가치론에서도 그러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逆說의 이다. 뵘바베르크 이래, 아니 그 이전부터 노동가치론을 괴롭혀 왔던 물음 중의 하나, 즉 노동이 투입요소로 사용되지 않는 생산물의 경우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라는 물음은 실상 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복제불가능한 예술작품, 보다 중요하게는 토지와 같은 천연자원은 리카도 이래 항상 노동가치론의 도입부에서 잠깐 등장하였다가 사라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예외에 불과하였다.

리카도의 이른바 '不變의 가치척도'에 대한 추구를 계승하려는 의도를 표방하고 있는(Sraffa, 1960, p.23) 스라파의 체계는 더욱 명시적으로 닫힌 체계를 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스라파가 천연자원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였는가는 다음의 서술로부터 알 수 있다.

“토지……등과 같이 생산에 사용되는 천연자원은 공급이 부족하므로 그 소유자들은 지대를 획득하게 된다. 이들이 생산수단들 중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생산물들 중에서 비기초적 생산물이 차지하는 위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① 생산에는 사용되지만 그 자신은 생산되지 않으므로, ② 그들은 생산은 되지만 생산수단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상품들의 逆이 된다……소유자가 지대를 획득하는 천연자원과 비기초적 생산물과의 유사성은 그들이 '표준생산물'의 요소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Sraffa, 1960, p.91, 번호 및 밑줄은 引用者)

위의 인용문에서 ①과 ②는 각각 천연자원과 비기초재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逆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로부터 兩者가 표준생산물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이 나오는 것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논리적으로는 逆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경제의 모형을 구축함에 있어 양자가 갖는 구성요소로서의 중요성까지 동등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스라파는 기초재를 해당 상품이 직·간접적으로 모든 상품의 생산에 들어가는나 안 들어가는나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론적 문제

가 발생한다. 하나는 임금재가 직접 생산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기초재로 분류된다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직·간접적으로 모든 상품의 생산에 들어가는 상품(즉, 기초재)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이다. 스라파는 前者는 생존임금과 잉여임금의 구분이라는 방법으로, 後者는 “모든 체계가 적어도 한 개의 기초적 생산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p.10)함으로써 피해 간다. 결국 이 과정에서 “생산에는 사용되지만 그 자신은 생산되지 않는 상품” 중에서 천연자원보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노동력을 이론체계 내에서 처리하는 방식도 결정된다. 즉, 생산과정에서의 노동력의 투입은 임금재의 투입으로 換喩되기에 이르고, 식 (1)’와 같은 표현이 가능해지는 길도 열리는 것이다.

한편 마르크스에게서는 노동력은 일관되게 천연자원과 구별되는 특수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자연주의(naturalism)’(Lippi, 1979)라 부르건 휴머니즘이라 부르건 간에, 인간이 자연과의 물질대사를 통해 스스로의 삶의 조건을 변형시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는 역사유물론의 기본정식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명제 2]는 단지 마르크스주의적 노동가치론 내에서 노동력가치를 임금재 가치로 치환시키느냐 마느냐라는 협소한 문제가 아니라, 가격변동을 규제하는 실체로서의 가치개념을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나라는 훨씬 일반적인 문제로 확장된다. 즉, 가치론구성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건 천연자원이건 간에 생산가격체계를 열린 체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소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계를 열린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는 노동력과 천연자원 간에 형식논리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초기에 노동가치론을 지지하던 입장에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포기하는 입장으로 나아간 미셸 드 브루이가 그 과도적 단계에서 노동력은 ‘특수한 천연자원’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De Vroey, 1985)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노동가치론의 확장(또는 訂正을 통한 일반화)을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포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의 극단적 발전의 결과 완전 자동화(full automation)가 이루어지고 나면, 착취의 대상(노동력)이 사라지므로 자본주의는 존속할 수 없게 된다는지(Mandel, 1975), 또는 逆으로 그래도 자본주의는 존재하며 이윤도 발생할 것이므로 노동가치론의 오류가 현실 속에서 입증된다는지(Steedman, 1984) 하는 등의 논의는 생산가격체계가 이를테면 情報나

知識과 같은 제3의 요소에 의해 열린 체계로 바뀔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보다 일반적인 맥락에서 다루어질 수 있게 된다.⁸⁾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사실 두 가지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하나는 노동가치론의 휴머니즘적 기초를 유지하면서 제3의 요소를 통합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휴머니즘적 기초를 문제삼지 않는 상태에서 체계가 열려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요소에 관해 분석하는 것이다.

4. 세 번째 命題 : 일반이윤율의 결정

마지막 명제는 일반이윤율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이다.

[명제 3] 일반이윤율은 기초재부문의 생산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또는 그 부정으로서의)

[명제 3]' 일반이윤율은 비기초재부문의 생산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명제 3]'는 마르크스가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적어도 스라파에 의해 정식화된 표준적 생산가격체계를 받아들이는 論者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즉, [명제 3]이 성립하는 것으로—정리되고 있다(Abraham-Frois and Berrebi, 1979).

즉, 페론-프로베니우스(Perron-Frobenius)定理에 의해, 생산가격체계 (1)에서 일반이윤율(r)과 투입계수행렬(A)의 최대특성근(λ_{MAX}) 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frac{1}{1+r} = \lambda_{MAX} \quad (3)$$

그런데 행렬 A 에서 비기초재에 해당하는 원소는 정의상 0이기 때문에, λ_{MAX} 의 크기는 비기초재부문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8) 佐藤(1990)의 논의는 완전자동화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표준적 대응방식을 잘 보여주는데, 그에 따르면 직접 노동의 개념을 감시 및 보수, 소프트웨어 관련노동으로까지 확장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식의 상품화'를 강조하는 Morris-Suzuki(1986)의 논의는 이 글의 논지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예컨대, 그는 "지식의 상업적 생산이 중요해짐에 따라……분석대상을 상품생산의 닫혀진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경제학의 전통은 무력화된(p.88)"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닫혀진 시스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필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말하는 일반이윤율은 단순히 각 부문의 이윤율을 산술적으로 평균한 ‘평균이윤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치재부문의 이윤율이 50%이고 필수재부문의 이윤율이 30%라면, 평균이윤율은 그 중간수준인 40% 정도에서 결정되므로 분명히 사치재부문으로부터 계산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윤율이 30%인 부문으로부터 50%인 부문으로 자본이동이 발생한 결과 최종적으로 달성되는 균형으로서의 일반이윤율이 과연 사치재 부문의 영향을 받는가이다.

그러나 [명제 3] 또는 [명제 3]’가 쉽게 포기하여도 좋은 수학적 성질에 불과한 것(Lipietz, 1982)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명제 2], 나아가 [명제 1]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가치를 임금재가치로 치환하는 것(즉, [명제 2]를 승인하는 것)과 $w=0$ 인 일종의 노예제사회를 상정하는 것, 그리고 $l=0$ 인 완전자동화경제를 상정하는 것은 모두 형식논리적으로 동일한 결과(즉, [명제 3])를 낳는다. 여기에서 $w=0$ 및 $l=0$ 을 상정하는 것은 바로 생산가격체계를 열린 체계로 유지해 주는 중요한 요소인 노동력(즉, $(1)''$ 의 w/l)을 제거함으로써 닫힌 체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명제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즉 일반이윤율이 비기초재부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생산가격체계 식 (1)에 등장하는 외생변수들이 不變의 與件이 아니라, 생산과정과 자본의 부문 간 이동과정에서 반드시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⁹⁾

결론적으로 닫힌 체계를 상정하는 경제학은 체계를 열린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요소들을 배제하는 이론적 절차를 반드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자.

스라파가 찾아 낸 ‘不變의 가치척도’란 결국 기초재만으로 구성되는 架空의 복합상품(즉, ‘標準商品’)이었을 따름이다. 이미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스라파체계 내에서 토지 등의 천연자원이 비기초적 생산물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받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상품에 의한 상품생산’이라는 스라파 저작의 제목은 그의 체계가 닫힌 체계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¹⁰⁾

9) [명제 3]’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명하려는 시도로는 류동민(1996), pp.360-364 참조.

10) 따라서 스라파체계를 다른 상품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어떠한 상품도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의 ‘상품가치론(commodity theory of value)’으로 일반화하려는 Pack(1985)의 시도는 결국 가치론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Pack(1985)의 표현을 借用하

일반균형이론의 始祖인 왈라스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이론적 절차는 발견된다.

물론 다음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純粹政治經濟學要論』에서 왈라스는 한편으로는 가치실체로서의 效用(또는 稀少性)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희소성(*rareté*)은, 마치 중량이 질량과 관련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환가치(*value in exchange*)와 불가피하게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가치에 비례하는 추정가능한 크기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만약 희소성과 교환가치가 두 가지 동시적이고 비례적인 현상이라면, 마찬가지로 희소성이 교환가치의 원인이라는 것도 분명하다.”(Walras, 1954, p.145)

즉, 왈라스는 여전히 가격(또는 교환가치)을 규정하는 본질적 요인으로서의 가치라는 개념에 어느 정도 사로잡혀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왈라스 저작의 전체적인 논지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서술은 논증되지 않은 단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순수정치경제학요론』의 英文版 번역자인 자페(W. Jaffé)는 이 부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완전히 독립적인 현상이 동시성과 비례성의 관계에 의해 연계되어 있음을 확신한다 하더라도, 정태적인 모형 내에서 인과관계의 방향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 두 가지 현상 중의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p.512)”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

그러나 왈라스의 이론체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닫힌 체계로서의 일반균형이론의 구성이었으며, 이는 위의 인용문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경향이 었다. 이러한 경향이 앞의 경향을 압도하는 방향으로 이후의 이론사가 전개되었음은 잘 알려진 바대로이다. 왈라스는 생산요소를 토지자본(*landed capital*), 인간자본(*personal capital*), 고유의 자본재(*capital good proper*)로 나눈 뒤, 각각으로부터 토지서비스, 노동서비스, 자본서비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가격이 각각 서비스시장에서의 需給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Walras, 1954, pp.211-223)함으로써 시스템을 닫힌 체계로 만든다. 이는 토지나 노동과 같이 체계를 열린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에 대해, 일종의 流量(flow)과 貯量(stock)을 구분함으로써 적어도 유량변수인 토지서비스나 노동서비스는 체계 속

자면, 스라파의 가치론에서는 비기초재의 역할은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초재가치론(basic commodity theory of value)’이라고 命名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¹¹⁾

III. 結 論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명제 1]-[명제 2]-[명제 3], 또는 그 부정적 형태로서의 [명제 1]'-[명제 2]'-[명제 3]'는 하나의 상호연관된 총체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들 세 가지 명제 간에 연관을 확보해 주는 것은 '열린/닫힌 체계'라는 개념이다.

더욱이 방정식체계의 수학적 특성으로부터 출발한 필자의 '열린/닫힌 체계'구분은, 동일한 구분에 대한 기존 용어법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역사적 맥락을 갖는 규정, 즉 '경제의 매몰성' 여부라는 구분과 脈이 닿을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풀라니는 시장경제의 역사를 원래는 상품이 아닌 본원적 요소들('허구적 상품')을 상품으로 편입해 가는 과정의 역사로 파악하였다. 이것은 이 글에서 분석한 [명제 2] 또는 [명제 2]'가 단순히 이론적 선택이나 논리정합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시장경제의 확장을 추진하는 힘과 그에 저항하는 힘간의 대립을 일정 정도 반영한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資本論』의 始初蓄積에 관한 章에서 마르크스가 강조한 바 있는 경제 외적 폭력으로서의 국가의 역할,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ISA) 등은 노동력이라는 '허구적 상품'을 유지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를 열린 것으로 만드는 요소를 끊임없이 닫힌 체계 내로 포섭하기 위한 非경제적 영역에서의 명시적·암묵적 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이 글에서 분석한 세 가지 명제와 관련하여 노동가치론 내부의 여러 分派들이 首尾一貫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리시마-오키시오類의 노동가치론은 [명제 1]'-[명제 2]-[명제 3]의 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新리카도학파의 비판처럼 [명제 1]'를 버리고 [명제 1]로 가는 것이 정합적이다. 그리고 뒤메닐-폴리-리피에츠類의 이른바 '新 해석(New Interpretation)'은 [명제 1]'-[명제 2]-[명제 3](또는 [명제3]')으로 기본

11) 그리 주목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유량과 저장량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려고 하였던 시도가 지닌 문제점 중의 하나는 모리시마가 지적하는 '耐久財의 딜레마'라는 문제로 나타났다(森嶋, 1995). 모리시마에 따르면, 내구재의 경우 신규제품시장 이외에도 임대차시장 및 중고제품시장 등이 존재하며 제약적인 가정 없이는 이들 각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들 간에 일정한 균형조건이 충족된다는 보장은 없다.

적으로는 '70년대의 가치론과 동일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다. 다만, [명제2]를 매우 약한 형태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만큼의 내적 발전을 이룩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¹²⁾ 이렇게 생각한다면 '新해석'의 유력한 발전방향 중의 하나는 [명제 1]'-[명제 2]'-[명제 3]'의 짝으로 논리구성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제시된 세 가지 명제가 기존의 노동가치론 논쟁에서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논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한계를 지적해 둔다. 예컨대, 방정식체계에서는 단순히 l 이라는 벡터로서만 등장하는 노동투입량의 기술적인 결정 또는 측정의 문제, 나아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적절히 정의하는 문제(이른바 '추상노동' 개념) 등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筆者가 수학적으로 정식화된 생산가격체계 및 가치체계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고 그러한 체계의 구성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한편으로는 추상노동의 개념규정 등에 관한 논의가 철학적·방법론적으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가치론의 현대경제에의 발전적 적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다는 筆者의 가치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參 考 文 獻

1. 강남훈, "생산가격체계에서 리카도적 편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신정치경제학연구』 창간호, 한신대학교 한신경제과학연구소, 1994.
2. 류동민, "표준적 생산가격체계의 동학화 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경제평론』 제9집, 한국사회경제학회, 1996.
3. 박도영, "하이에크의 '자생적' 시장질서론과 화폐제도에론 비판",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학위논문, 1997
4. 洪薰, "마르크스의 批判方法에 대한 研究: 스미스와 리카도에 대한 批判을 中

12) 예를 들어 리피에츠는 노동력 가치를 임금재벡터의 가치로 치환하는 방식과 화폐임금의 노동동가로 간주하는 방식이 양립가능하며, 필요한 상황에 맞춰 둘 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한다(Lipietz, 1993, p.44). 그러므로 이는 첫 번째 방식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명제 2]'와 같지 않다. 반면 전형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방식의 정의를 사용하므로 사실상 [명제 2]'를 부정하는 효과도 갖고 있는 것이다.

- 心으로”, 『經濟學研究』 제45집 제4호, 韓國經濟學會, 1997
5. 佐藤良一, “オートメーションと労働價値説の妥當性”, 『労働價値説の現代的意義』, 經濟理論學會年報 第27集, 1990.
6. 森嶋通夫, 『思想으로서의 近代經濟學』, 李承茂 옮김, 비봉출판사, 1995.
7. Abraham-Frois, G. and E. Berrebi, *Theory of Value, Prices and the Accum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8. Brody, A., *Proportions, Prices and Planning : A Mathematical Restatement of the Labor theory of Value*,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1970.
9. De Vroey, M., “La Théorie du Salaire de Marx: Une Critique Hétérodoxe”, *Revue Economique*, Vol.36, No.2, 1985.
10. Lipietz, A., “The So-Called ‘Transformation Problem’ Revisited”, *Journal of Economic Theory*, Vol.26, No.1, 1982.
11. ———, 『조절이론과 마르크스경제학의 재해석』, 김균 옮김, 인간사랑, 1993.
12. Lippi, M., *Value and Naturalism in Marx*, New Left books, 1979.
13. Mandel, E., *Late Capitalism*, New Left Books, 1975.
14. Morris-Suzuki, T., “Capitalism in the Computer Age”, *New Left Review*, No.160, 1986.
15. Pack, Spencer J., *Reconstructing Marxian Economics: Marx Based upon A Sraffian Commodity Theory of Value*, Praeger, 1985.
16. Polanyi, K., 『거대한 변환 : 우리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 박현수 옮김, 민음사, 1991.
17. Reuten, G., “The Notion of Tendency in Marx’s 1894 Law of Profit”, in Fred Moseley and Martha Campbell eds., *New Investigations of Marx’s Method*, Humanities Press, 1997.
18. Semmler, W., *Competition, Monopoly and Differential Profit Rate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19. Smith, T., “Marx’s Theory of Social Forms and Lakatos’s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in Fred Moseley and

Martha Campbell eds, *New Investigations of Marx's Method*, Humanities Press, 1997.

20. Sraffa, P., 『商品에 의한 商品生産』, 박찬일 역, 비봉출판사, 1960
21. Steedman, I., "Robots And Capitalism: A Clarification", *New Left Review*, No.151, 1984.
22. Walras, L., *Elements of Pure Economics*, trans. by W. Jaffé,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54.